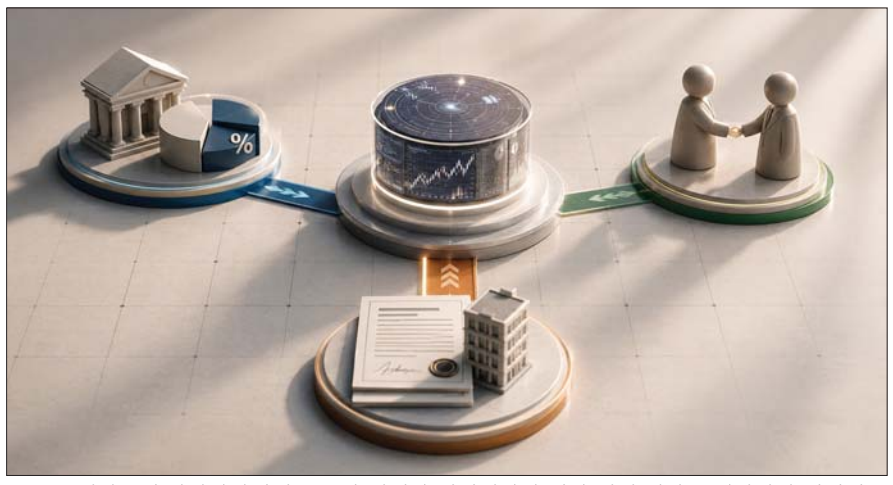
“코인 거래소가 미래 먹거리”… 금융권, 지분 확보 경쟁 격화

한투證, 코인원 지분 약 20% 확보
삼성그룹, 두나무 지분 4% 취득
미래에셋, 코빗 92.06% 인수 추진


주요 증권사들의 가상자산거래소 투자 경쟁과 디지털자산 시장 선점 전략을 형상화한 이미지.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그룹 등 주요 금융투자사들과 국내 시중은행이 잇따라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확보에 나서며 디지털자산 시장 선점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STO), 실물자산토큰화(RWA) 등 디지털자산 제도화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행보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최근 가상자산거래소와의 전략적 제휴 및 지분 투자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삼성증권이 두나무 지분 투자에 합류한 데 이어 한국투자증권은 코인원 3대 주주로 올라섰고, 미래에셋그룹도 코빗 경영권 확보를 추진 중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STO) 제도화가 가시화되면서 디지털자산 생태계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9일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과 전략적 지분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컴투스홀딩스가 보유한 구주와 신규 발행 주식을 포함해 총 15만9610주를 취득하며 약 20%의 지분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차명훈 대표와 컴투스홀딩스에 이어 코인원의 3대 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투자를 계기로 디지털 금융 신사업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토큰증권(STO)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전통 금융 서비스와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금융사의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역량을 접목해 거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삼성증권·삼성SDS·삼성카드는 지난 28일 카카오 계열사가 보유한 두나무 지분 4%를 총 6128억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증권이 2%, 삼성SDS와 삼성카드가 각각 1%씩 확보한다. 단순히 증권사 한 곳이 투자한 것이 아니라 금융과 IT, 결제 계열사가 함께 참여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삼성증권은 토큰증권 발행·유통과 가상자산 서비스를, 삼성SDS는 AI·클라우드·보안 기술과 블록체인 인프라를, 삼성카드는 모니모를 중심으로 한 결제 생태계를 각각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업계에서는 두나무를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는 협업 모델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미래에셋은 보다 과감한 방식을 택했다. 미래에셋그룹은 지난 2월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 코빗 지분 92.06% 취득을 결정하고 경영권 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소수 지분 투자나 제휴가 아니라 거래소를 직접 품는 전략이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코빗 인수와 관련해 단순한 가상자산 거래를 넘어 토큰화 비즈니스를 염두에 둔 전략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미래에셋의 코빗 인수를 디지털자산 사업 확대를 위한 전략적 투자로 보고 있다. 거래소가 보유한 실명계좌 연계 체계와 자금세탁방지(AML), 거래 인프라 등을 활용해 신규 사업 진출 속도를 높일 수 있어서다. 향후 토큰증권과 실물자산 토큰화, 자산관리(WM) 사업과의 연계도 기대된다.

이 밖에도 하나은행은 두나무 지분 6.55% 인수를 결정했으며, 한화투자증권은 두나무 지분 9.84%를 보유한 주요 주주다. 금융권 전반에서 가상자산거래소를 미래 금융 인프라로 바라보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지분 투자 경쟁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증권사들의 거래소 지분 투자는 단순히 가상자산 거래 수익을 노린 접근이라기보다 디지털자산 시대의 인프라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성공과 2025년 미국의 규제 기조 변화 이후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시장 진입이 빨라지고 있다”며 “국내 금융사들도 향후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STO), 실물자산 토큰화(RWA) 시장 확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포지션을 구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 시장이 성장할수록 단순히 토큰을 발행하는 것보다 유통 인프라와 플랫폼을 누가 확보하느냐가 더 중요해질 수 있다”며 “결국 시장 주도권 경쟁은 거래소와 같은 핵심 인프라를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삼전닉스 임원 ‘잭팟’… 수익률 최대 400%

삼전 ‘저점 매수’ SK ‘스톡옵션’ 효과
등기임원 5명 평가금액 총 1012억

최근 ‘30만전자’와 ‘200만닉스’를 달성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일부 임원의 자사주 수익률이 최소 180%에서 최대 4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의 경우 꾸준한 저점 매수, SK하이닉스는 스톡옵션(주식선택매수권) 행사에 따른 수익률 증가가 두드러졌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지난 10년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기 임원(사장 이상) 각 3명과 2명의 자사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주식의 평가 금액은 1012억원으로 나타났다.

평가금액으로 따지면 SK하이닉스 곽노정 대표이사 사장이 1만4312주를 보유, 지난 29일 종가(233만3000원) 기준으로 333억9000만원으로 나타나 가장 많았다.

곽 사장의 평균 매수 단가는 취득가액을 취득일 종가로 계산하면 약 68만원으로, 236억원의 차익을 기록해 차익 기준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수익률은 241%다.

SK하이닉스 차선용 사장의 경우 수익률이 400%를 넘어서 가장 높았다. 보유 주식 6834주의 평균단가는 약 43만원에 평가금액은 159억원으로, 차익만 130억원이다.

곽 사장과 차 사장의 수익률엔 지난달 6일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곽 사장과 차 사장은 13만8980원에 2329주씩 스톡옵션을 행사한 바 있다. 당시 SK하이닉스 주가는 88만6000원이었다.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겸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사장)의 평가금액도 300억원을 넘은 312억원을 기록했다.

노 사장은 2021~2024년 삼성전자 주가가 6만~8만1700원을 오르내릴 때 책임경영 차원에서 총 2만8000주를 직접 사들였다. 이들 주식만 보면 평균단가는 약 7만1000원이다. 지난 29일 종가(31만7000원)와 비교하면 4배(347%)가량 수익본 셈이다.

지난해와 올해 상여금으로 받은 나머지 7만여주(평균단가 12만6000원)와 함께 계산하면 수익률은 180%대로 나타났다.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겸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과 김용관 DS부문 경영전략총괄 사장 사장은 각각 3만2787주, 3만2158주를 보유해 평가액이 각각 104억원, 102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익률은 각각 182%, 241%다.

이런 가운데 증권가는 코스피 질주를 이끄는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앞으로 더 오를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어, 자사주를 보유한 임원들의 수익률은 당분간도 ‘맑음’ 전망이다.

/신하은 기자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2배 수익만큼 손실 위험도 2배 주의”

금감원 Q&A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심 커져
개별 종목·산업 리스크 직접 노출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이 국내 증시에 처음 상장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높은 수익 가능성만큼 큰 손실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며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특정 종목의 일일 주가 변동률을 ±2배로 추종하는 구조입니다. 적은 자금으로 투자 효과를 확대할 수 있지만, 손실 역시 같은 비율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손실 감내 능력이 낮거나 상품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단일종목 상품은 분산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 지수형 ETF와 차이가 있습니다. 투자 대상 기업의 실적이나 업황, 특정 산업 관련 이슈에 직접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의 경우 글로벌 반도체 경기와 기업 실적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구조에 따른 손실 위험도 주의해야 합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자산의 일일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기 때문에 투자 방향이 예상과 반대로 움직일 경우 손실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가격제한폭이 ±30%인 점을 감안하면 이론적으로 하루 만에 최대 60% 손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주가가 장기간 상승하더라도 레버리지 상품 수익률이 반드시 기초자산 상승률의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주가가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복리 효과가 반대로 작용해 투자금이 잠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초자산이 30% 상승한 뒤 다시 30% 하락할 경우 일반 상품은 9% 손실을 기록하지만, 2배 레버리지 상품은 36% 손실이 발생합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기초자산이 연간 18% 상승했음에도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상품이 오히려 20% 손실을 기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투자 전 괴리율 확인도 필요합니다. 레버리지 ETF는 수급 불균형이나 유동성 부족 등의 영향으로 실제 자산가치(NAV)와 시장 거래가격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고평가된 가격에 매수할 경우 불필요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만큼 투자 전 한국거래소 통계 시스템 등을 통해 괴리율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허정윤 기자

공인회계사 수습기관 확대·배정제 도입

금융위, 수습 안정화 방안 의결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들이 수습처를 구하지 못해 공인회계사 등록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실무수습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국회와 법원, 국민연금공단 등으로 수습기관을 확대하고 장기간 수습처를 찾지 못한 합격자에게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직접 수습처를 배정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 수습 안정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실무수습기관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수습기관은 회계법인과 감사반,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으로 제한돼 있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지정고시’ 개정을 추진해 기존 기관 외에 국회, 법원, 국민연금공단 등 합격자 선호기관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기관도 수습기관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실무수습이 가능한 부서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재무제표 작성 등 회계 관련 부서 중심으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지도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거쳐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인정하는 부서까지 확대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도 관련 내규를 개정해 지도 공인회계사 규제를 완화한다. 지도 공인회계사가 없는 경우 최고재무책임자(CFO)나 회계팀장이 실무지도를 맡을 수 있도록 하고, 지도 공인회계사 자격요건도 회계사 경력 7년 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낮출 예정이다.

수습처를 구하지 못한 시험 합격자를 위한 배정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대상은 시험 합격 후 2년 이상 실무수습을 받지 못한 장기 미지정 회계사 가운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수습처 배정을 신청한 사람이다. 제도는 수습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배정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계법인별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해 수습 인원을 할당하면 각 회계법인이 해당 인원을 채용하는 방식이다.

/허정윤 기자